

김수영과 서울의 장소성

이민호(김수영연구회)

1. 김수영의 시적 대상 변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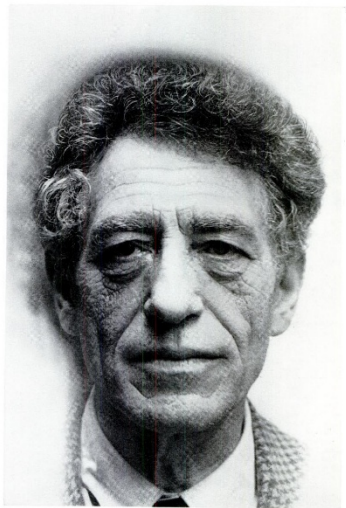
- ① 제1기 – 연극에서 시로의 전향 (1940년대)
 - 구상적·풍자적 실천 → 내면적·초현실적 사유로 중심 이동
 - 현실 재현의 한계를 자각하면서 추상성 강화
 - 의의: 예술 대상 인식의 형식 변모 시작
- ② 제2기 – 4·19혁명 이후 (1960년대 초)
 - 개인·내면 → 사회·현실·민중·역사적 집단
 - 시 = 이념이 아닌 행동, 몸, 행위의 실천
 - 의의: 현실참여와 형식실험의 결합/시적 현실 감각 강화
- ③ 제3기 – 자코메티의 영향 (1965년 이후)
 - 실재를 완전히 재현할 수 없음 → '불가능성의 진실' 수용
 - 반복·미달·집요한 시적 응시
 - 시인의 자기 소멸 → 외부 현실·타자·공동체 수용 구조
 - '보이지 않는 실재'에 대한 탐구
 - 의의: 실재 인식의 불가능성 자체를 예술적 진실로 전환



동묘 내부 전경

2. 서울의 장소적 재구성

- (1) 해방기 (1945~1950)
 - 식민지 공간 구조 해체, 귀환민·피란민 급증 → 무허가촌 확산.
 - 혼란과 무질서 속 *전환기의 도시*.
 - 문학: 해방의 희열과 좌절이 교차, 귀환자 소외·내면 도피 서사.
 - (2) 전후 (1950년대)
 - 전쟁으로 폐허 → 판자촌·임시주거 확대, 미군 원조로 부분 복구.
 - 문학: 생존·상실·재건의 공간, 근대화 속도와 개인 정체성의 불일치 묘사.
 - (3) 4·19 이후 (1960년대)
 - 광장·거리 등 정치적 공간 등장 → 저항·기억·민주 실천의 상징.
 - 산업화로 인한 소외·비인간성 부각.
 - 문학: 공공성·저항문화 확산, 권력 공간의 상징적 재해석.
- 의미
- 서울은 시간이 중첩된 장소: 식민지 잔재 → 폐허 → 재건 → 근대화.
 - 문학적 장소성: 변화·상실 속에서도 기억과 감정이 재구성되는 장(場).
 - 현대 문학 연구에 '지리적 감각(geo-sensitivity)'을 부각시키는 근거 마련.



1901-1966

GIACOMETTI

The Career and Quest of a Great Sculptor

• "Alberto Giacometti spent his life in a pursuit he considered 'impossible'—trying to 'see reality.'"
(알베르토 자코메티는 '실재를 본다'는, 그 자신이 '불가능하다'고 여긴 추구에 인생을 바쳤다.)

• "Canvases and figures of plaster, bearing the scars of his struggle to seize what he saw, give shape to his vision of life and man."

(그가 본 것을 붙잡으려는 투쟁의 상처를 지닌 캔버스와 회반죽 인물상이, 삶과 인간에 대한 그의 시각에 형태를 제공했다.)

• "Yet for Giacometti, who destroyed and remade a sculpture as many as 50 times, his work was never adequate. 'I know ... I can never reproduce what I see, even if I live to be a thousand.'"

(자코메티는 같은 조각을 50번이나 만들고 다시 부수곤 했으나 그의 작품은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. 그는 "나는 알아. 내가 천년을 산다 해도 내가 본 것을 결코 재현할 수 없다는 걸..."이라고 말했다.)(LIFE(LIFE magazine), 2025. 1. 28.)

1. 시적 변모의 성격

- 역사·사회 변화뿐 아니라 현대 예술의 미학적 자극과 자기화에서 비롯
- 추상적 서정 → 구체적 현실 인식으로 전환
- 서울의 장소 경험이 시적 대상 변모와 맞물림

2. 제1기 - 「묘정의 노래」

- 연극적 집단 인식 → 개인·내면 중심 초현실주의
- '남묘' = 실재 없는 재구성된 상징 공간(권위와 전통 해체)
- 전통적 '궁정 예술'의 형식을 인식하면서 해체의 방향 제시

3. 제2기 - 「신귀거래」 연작

- 4·19 이후 내면 → 현실로 전환
- 도봉산 본가의 일상·기억 공간 = 서울 장소성의 개인화
- 일상과 주변 사물을 시적 대상으로 삼아 '현실 속 바로보기' 실천
- 장소 재구성이 곧 시적 대상의 변모

4. 제3기 - 「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」

- 자코메티 예술론과의 공명: 실재 직시, 권위 해체, 예술의 윤리성
- '고궁' = 권위·전통 공간 → 벗어남 = 자유 예술가의 선언
- '조그마한 일에 분개' = 현실 인식의 자기 각성

<정리>

- 김수영의 시적 대상 변모는 현대 예술의 자극과 서울 공간 경험이 결합한 결과
- 초현실의 내면에서 현실의 윤리로
- 서울은 그 변모의 무대이자 시적 자각의 장소